



ETSI 44차 총회, Future Generation Conference - Technical, Social and Legislative

TTA 표준화본부 전략기획팀 과장 진 수 경



1. 서론

유럽시장 단일화에 따른 기술표준 개발과 세계표준의 사전 구축을 목표로 1988년 3월에 설립된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는 정보통신 및 방송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TTA와는 3GPP, GSC 등을 통해 이미 친숙한 기구이기도 하다.

ETSI 총회는 매년 봄과 가을 2회 개최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2005년도 전략과 장기발전 계획을 승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장기발전계획에서는 지역표준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탈피하려는 글로벌 회원제 및 조직개선 등에 대한 구상이 진행 중이며, 이번 3월 45차 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금년도 전략으로서 주요 기술적 이슈에 대한 ETSI의 잠재기회 분석, 포럼과의 차별화를 위한 조사, 유럽 내에서의 협력강화, 외부기구와의 협력을 제시하고 있었다.

연속으로 개최된 “Future Generation Conference - Technical, Social, and Legislative”은 표준의 미래에 관해 기술적, 사회적, 입법적 입장에서의 의견을 교환하는 컨퍼런스였다. 특히 NGN에서의 글로벌 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NGN Implementable standards를 위해 유럽-ETSI, 미국-ATIS, 아시아-CJK의 협력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영국 정부, 네덜란드 정부, ETSI, IBM, Siemens, TIE-Global, Nortel, BT, Vodafone 등의 20여 명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 ETSI 44차 총회

- 일시 : 2004. 11. 29 ~ 30
- 장소 : 프랑스 / 니스
- 참석자 : ETSI 회원국 100여 명
- 참관기관 : TTA, TTC, ARIB
- 주요의제 : ETSI Strategy 2005, High Level Review Group의 장기발전계획

(2) Future Generation Conference - Technical, Social, and Legislative

- 일시 : 2004. 12. 1 ~ 3
- 장소 : 프랑스 / 소피아안티폴리스(ETSI 본부)
- 참가자 : TTA, RRL(국내), 그 외 60여 명

SWOT 분석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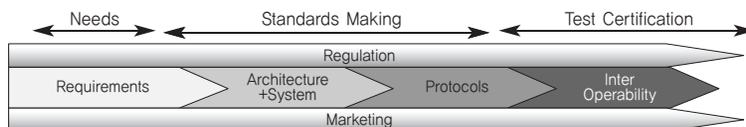
- New Mechanisms : 최근 생성된 5개의 대표적 인 포럼을 선정하여 조사(ETSI에서 수행될 수 있었던 작업인지, ETSI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인지) ->2005년 1분기 시행
- External relations : 연구기관과 대학과의 협력 강화, 외부기구 회의 개최 -ESO/ANSI 회의 개최('05년 1월), GSC10 회의개최('05년 8월)
- ETSI as an ESO : ESS(European Standardization System-CEN/CENELEC/ETSI)의 기구와의 관계 증진, EU 정책참여 확대(침해 관련 신규 Directive, Regulatory Framework 등), EC/EFTA 기술 프로그램에 참여 증대, EC와의 채널 강화
- HLRG(High Level Review Group) 중간보고
- HLRG는 ETSI의 업무, 전략, 구조, 정책, 재정 및 결과물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43차 총회에서 신설되었음.
- HLRG에서 예상하는 2006년 및 그 이후의 이슈로는
 - 지역기구로서의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특정 분야에서는 글로벌 회원제를 통한 세계화 전략 추진
 - 컨버전스에 대비한 ICT 표준화에 대한 강조
 - ETSI의 강점인 포럼과 공식표준기구간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 강조
 - ETSI의 역할을 유럽/글로벌/공통서비스로 나누어 조직을 개선하려는 구상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45차 총회에서 제안될 예정

2. 회의 내용

2.1 ETSI 44차 총회

- ETSI Strategy 2005 승인
 - : 전략을 크게 4분야로 마련. 특히 포럼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분석작업과 유럽 내에서의 협력을 강조
 - Major Strategic Topics : 주요 전략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champion'으로 칭함)를 할당, champion은 각 이슈에 대한 ETSI의 현재의 위치와 새로운 기회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 Food Chain'¹⁾을 만들고, 잠재기회 관점에서의

1) 표준 Food Chain: '요구사항->시스템/아키텍처->프로토콜->상호운용성'의 단계와 법률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표준화기구들을 할당하여 관계를 표시(아래 그림은 표준 Food Chain의 양식으로서, 각 영역 안에 표준화기구들을 나열하게 됨)



- 2004년도 예산 현황 및 2005년도 예산안 승인
 - ETSI에서는 잉여금은 회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 잉여금인 500k 유로(약 7억5천만 원)를 회원에게 분배하기로 함
 -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와 비슷한 수준(21,290유로, 약 320억 원)
 - 2005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NGN TISPAN 예산은 2004년도 잉여금 분배시 이를 다시 Voluntary contribution으로 요청하여 충당하기로 함
- 회원사 현황
 - 신규회원 승인(정회원 22, 준회원 6 등)을 통하여 현재 ETSI의 총 회원수는 613개 회원, 2,800 Unit²⁾임
- CEN, CELENEC과 공동으로 2006년 봄 총회를 부다페스트 개최 논의
 - 비용, 참석자 이동 등의 문제가 제기, 반면에 각 기구간의 참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이 많았음→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ETSI Guide on IPR 발간
 - ETSI IPR 정책 운영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40차 총회에서는 임시그룹을 결성하여 기고서 작성(IPR 정책 변경은 아님)
 - 42차 총회 보고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번 총회에서는 “ETSI Guide on IPR”을 문서로 발간

2.2 Future Generation Conference – Technical, Social, and Legislative

표준의 미래에 관해 기술적, 사회적, 입법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로서, 표준에 대한 입장을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매 부문마다 토론을 통해 의

견을 교환하였다.

- 사용자와 소비자 관점(User/Consumer View)
 - 제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사용자/소비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표준화 절차에 참여해야 함. 표준화는 제조, 네트워크 운영자, 서비스 제공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있어 사용자/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
 - 사용자/소비자의 요구사항: 안정성(Safety), 서비스 품질(QoS), 보안성(Secur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특히 강조), 모두를 위한 접근성이 보장된 디자인(Accessibility), 개인정보 보호(Privacy)
 - EU 회원과 ETFA 국가의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는 기구인 ANEC, UN/CEFACT Forum 의장, ETSI의 TC Human Factors 의장의 발표가 있었음
- 정부, 입법, 표준기구의 관점(Government/Regulator/Standardization View)
 - 개인정보보호, 보안, 지적재산권과 같이 현재의 정책과 규정에 대한 기술적 도전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만이 아니라 기술과 정책의 두 가지 방향으로 국제적 협조가 이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핵심 이슈 논의를 목적으로 한 세션
 - 영국의 상무부(Ministry of Industry)에서는 ETSI가 response 속도를 좀더 높여야 하고, 보안 관련 입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 특히, 유럽 내 서로간의 도전보다 중국을 포함한 외부의 도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언급
 - ISOC(Internet Society)의 Public Policy 부의장은 “정책과 표준과의 관계 변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정책과 기술분야에 있어서 서로 다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바이랭귀얼 능력을 강조. 또한, UN의 '05년 WSIS(World Summit

2) Unit : 회원사의 규모에 따라 unit 수를 결정하고, unit당 회비 책정. Unit당 회비는 2차례에 걸쳐 납부하는데, 2005년도는 1차 unit당 회비=6,000유로, 2차 unit당 회비= 3,380유로



on the Information Society) 회의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음

- 사회/학문/지적재산권의 관점(Social/Academic/IPR view)
 - 기술의 혁신을 위해 R&D를 위한 투자가 이뤄지며, 이러한 투자에 대한 보상이 지적재산권임, 지적재산권과 표준과의 마찰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그러나, 어떠한 기술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결말
 - ETSI의 자문번호사는 FRAND와 patent pool을 통한 보상으로 기술혁신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으며, 표준과 지적재산권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절차가 공정하고 합당해야 함을 강조.
- ICT 제공자의 관점(ICT Providers' View)
 - 네덜란드의 재정부는 EU2004 Lisbon 전략에서 ICT가 EU 경제의 경쟁력을 가지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호운용성과 표준이 ICT 시장을 이끌 핵심임을 강조
 - Nortel Networks에서는 ETSI, ATIS, CJK의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Global NGN Implementable standards를 만들자고 제안
- 패널토의 결론
 - NGN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닌 상업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 NGN 성공에 있어서 가격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 가격 감소를 위해서는 Global standard만이 해결책
 - 즉, 이번 컨퍼런스가 여러 관점들의 논의를 이끌고 있지만, 결국 시장논리에 따른 NGN 표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음.

3. 결론

- ETSI가 유럽표준화기구라는 점에서 우리와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국내 DMB 표준을 ETSI 표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ETSI는 그 중요성을 더 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TTA를 비롯한 국내 표준화 관련 업계 및 기관은 ETSI의 표준화 활동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에 체결된 TTA와 ETSI간 MoU를 현행화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또한,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05년 전략에 대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특히, '주요 전략적 이슈에 대한 ETSI의 잠재기회 분석'을 통해 ETSI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을 가지고 새로운 잠재기회를 찾아낼지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New Mechanism"의 전략의 일환인 주요 포럼과 ETSI의 수행가능성을 비교 조사한 결과도 주목된다.
-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SUN의 주도로 처음 개최되었는데, NGN 표준화와 관련하여 CJK와의 협력이 강조된 점이 눈에 띄었고, 시장의 규모면에서 위협적인 중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CJK 활동과 홍보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